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무」中-



목차 CONTENTS

01 참여노인 수기

01. 행복을 파는 스토어 매니저 이철훈	04
02. 고객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공항지킴이’ 고혜자	13
03. 저는 강남시니어입니다 조복순	19
0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건강한 인생 2모작 창출 박금홍	25
05. 오늘도 내일도 봉봉 김광현	29
0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현순	32
07. 활동의 즐거움과 자부심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나의 발걸음 우문웅	36

02 관계자 수기

01. 노인일자리 속에서 잊혀진 나를 인정받다 남궁민희	43
02. 노인의 꿈을 이루는 노인일자리 고건희	46
03. ‘우유갑 원정대’ 오늘도 출동! 정명분	51
04. 스쿨존 ‘노란발자국’ 아이들의 ‘안전발자국’ 박지은	54
05.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만난 내편 정연경	58
06. 소통의 결과 김소영	62
07. 함께 빛낸 CAFE SOOA! 최지희	65

03 대국민 수기

01. 어느 여름날 만난 암 환자와 어르신 조유정	69
노인일자리 현장 소식 및 인터뷰 영상	7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및 지역본부 연락망	77



01

참여노인 수기

- 01. 행복을 파는 스토어 매니저 | 이철훈 04
- 02. 고객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공항지킴이’ | 고혜자 13
- 03. 저는 강남시니어입니다 | 조복순 19
- 0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건강한 인생 2모작 창출 | 박금홍 25
- 05. 오늘도 내일도 붕붕 | 김광현 29
- 0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박현순 32
- 07. 활동의 즐거움과 자부심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나의 발걸음 | 우문웅 36



01

행복을 파는 스토어 매니저



이철훈 | 파주시니어클럽

창가에 앉아 오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묻는다.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젊었을 때 많이 물었던 질문을 70 가까운 나이에 다시 물으며, 푸른 하늘을 향해 미소를 던진다. 제자들에게 ‘사람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나,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가?

가만히 눈을 감고 인생을 돌아본다. 성장기, 활동기, 행복기(퇴직 후의 인생)로 나누어 차근차근 되돌아보니, 가끔은 아프고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미소가 지어진다. 태어나 자라며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30여년을 ‘성장기’라 한다면 그 시절은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다. 시골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 군에 다녀오고 대학원을 마치기까지 힘들고 고달팠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였기에...

학업을 마치고 고향 땅에서 학교 선생을 하며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성당을 가는 게 꿈이었는데, 바라던 그대로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건만 어머니는 대학 졸업 몇 개월 전에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함께 산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고양시의 백석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며 훈장까지 받았으니, 활동기의 삶도 행복했던 삶이라 하겠는데 뭔가 이상했다.

35년이란 교육자의 생활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은 뭐란 말인가? 보람되고 행복하다 여기며 살았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삶이었던가? 지금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시작한, 현재 퇴직 후의 삶은 어떠한가?

35년이란 교육자의 삶을 내려놓으니 내 나이 64세(만 62)였다. 적지 않은 나이다. 퇴임 후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공직자 출신들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비우려 마음수련원을 1년이나 다니며 내려놓으려 애썼다. 다행히 내게는 네잎클로버를 찾는 재주가 있기에 채취하여 압화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전시회도 열었으며, 기타를 배우고 노래하며 취미생활을 즐겼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무언가 죄스러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행복하지 않았고 무언가 허탈한 느낌이었다. 소설과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눈은 충혈되기 일쑤고 움직이지 않으니 무릎이 아프고 노환이 찾아왔다.

나름 정신을 차리고 일과표를 작성하여 지내려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억지로 일과표대로 생활한다는 건 행복의 조건과 부합되지 않았다.

원인이 무얼까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내 삶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 빠져 있었다. 또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백수의 삶은 즐거울 수가 없었나 보다. 친구들 만나 술 한잔을 할 때도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백수라 답하기도 짹짹했다.

그렇다. 결국은 '일'이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100세를 넘게 사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말마따나 '일을 해야 건강한 삶'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서류를 넣어보았지만 나이가 많아 그런지

연락 오는 곳이 없었다. 하긴 내가 사장이라도 65세가 넘는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고민 끝에 자격증이 있으면 나으려나 싶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노인심리상담사 1급, 가족심리상담사 1급, 문학심리상담사 1급,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그리고 요양보호사자격까지 취득했다. 그렇지만 불러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도 서류를 넣어보았지만 저소득층 위주의 선발이라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금촌역을 지나는데 ‘노인일자리’라는 글귀가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파주시니어클럽이었다.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해주며, 마침 편의점 일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편의점 일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저 카드로 계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결제 방법이 다양했다. 현금과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 기프트콘 결제, 교통카드 결제, 할인이나 적립카드 결제, 현금과 카드 통합결제, 상품권 결제, 모바일 결제 그리고 행사상품이 떨어져 못 드릴 때 '나만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결제, 택배 입고 및 전달 방법, 상품 입고 검수, 상품진열, 유통기한 확인 후 폐기 방법 등등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숙지해 교육을 받고 나니 어느새 출근 날이 다가왔다.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들을 복습할 겸 인터넷에 들어가 포스기 운영법을 보고 또 보며 모르는 건 기록까지 해두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 7시에 기상하던 습관이 있었지만 근무는 새벽 6시부터라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했다. 혹시라도 늦을까 알람까지 맞춰놓았지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부터 앞섰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보니 4시 50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머리를 감고 간단하게 아침 요기를 하니 5시 20분이다. 편의점까지 차로 20여분, 20분 전에 도착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6시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되었다.

첫날이라 복지사님과 동행 근무를 하였다.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근무다. 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상품을 판매하며 업무를 배우고 익혀나갔다. 말로 배우는 것과 실제 업무는 차이가 컸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기계를 작동해 봐야 내 것이 된다.

운전면허처럼 실제로 운전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익히며 정신없는 6시간이 지나갔다. 다음 근무자가 출근했다. 곁에서 알려주는 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니, '내일은 혼자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솔직하게 자신 없다고 했더니, 내일도 중간에 나와서 2시간 정도 동행 근무를 해 주겠다고 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퇴근을 했다.

다음 날도 역시 새벽 5시 40분에 도착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적어놓은 포스기 사용법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실수하지 않도록 머리에 되새겼다. 그렇게 다섯 번을 반복한 다음 매장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담배꽂초를 비롯한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니 마음이 상쾌해졌다. '딸랑'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첫 손님이 들어섰다. 여러 개의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왔지만 서두르지 않고 상품 바코드를 찍어 계산했다.

“그리고 말보로 레드 하나 추가요.”

“말보로 레드요? 죄송합니다. 오늘 첫 근무라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아, 어쩐지~. 조기요, 조기~”

내가 무언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손님이 고맙게도 손가락으로 가르쳐줬다.

“요건 가요?”

“아뇨, 바로 그 옆에 있는 거....”

“아, 이거요.”

포스기로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찍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마친 후 건네주며,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손님은 나의 인사에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받아갔다. 담배 진열장을 보며 담배위치를 확인한다. 담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담배 종류와 이름 그리고 위치를 빨리 익혀야겠다. 다른 상품들은 손님들이 찾아서 직접 가지고 오는데, 담배는 바로 계산대 뒤에 있기에 손님이 요구하는 걸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손님들이 올 때마다 공손하게 말한다. 업무가 익숙지 않아 동작이 굼뜨기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죄송합니다. 오늘 첫 근무니 양해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대다수의 손님들이 이해를 해주며 격려해주니 덩달아 기분도 좋아진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손님들을 맞아 근무하는데, 택배 부치려는 손님이 왔다. 더군다나 ‘착불’ 이란다. 착불은 받는 쪽에서 돈을 내는 거라 택배를 부칠 땐 돈을 내지 않는다. 배운 그대로 포스기로 바코드를 찍고 현금 버튼을 눌렀는데, 잘 되질 않는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첫 근무임을 알렸다.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차근히 시작하니 어려움은 손쉽게 해결되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끌어내리는데, 복지사님이 도와주러 오셨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것과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는 것은 천지차이다. 마침 상품이 들어와 ‘검수’를 하게 되었다. 배운 그대로 하나하나 검수를 한다. 다행히 이상이 없다. 검수가 끝나면 상품을 진열해야 한다. 진열하는 방법도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진열하는 도중에 택배

찾으러 오는 손님이 왔다. QR코드를 찍고 송장 번호를 찾아 전달하고는 영수증에 사인을 받아 보관해둔다. 나중에 안 받아 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단다. 곁에서 알려주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도와주시던 복지사님이 떠나면서, 근무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하라며 번호를 알려준다. 손님들을 맞으며 모르는 사항들을 전화로 문의해 처리하면서 무사히 또 하루가 지나갔다. 많은 손님들을 맞으면서 포스기 사용법을 익혔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걱정이 된다.

다음 출근 날은 일찍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으며 전 근무자에게 물었다. 손님이 상품을 반품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2+1 행사'시 상품이 모자랄 때 '나만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 외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배운 것들을 활용하며 근무하다 보니, 어느덧 6시간 근무가 끝난다. 바로 퇴근하지 않고 교대하러 온 다음 근무자에게도 묻고 배웠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익숙해져 갔지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작업은 '입고상품검수'였다. 분명히 하나씩 바코드를 찍으며 다 검수를 했음에도 미검수 상품이 검수기에 뜨는가 하면, 미검수 상품이 하나도 뜨지 않는데 상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미검수 상품 숫자가 뜨면 미검수 상품 숫자가 없어질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검수를 하고 또 한다. 그러면 미검수 상품이 없어진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검수를 다 마치고 미검수 상품 숫자가 없어 처리가 잘되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사는 다음 근무자분이 커피 마시러 와 이렇게 말을 한다.

“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안 넣었어요?”

“아이스크림요?”

보통 물건을 입고하려 할 때, 배달하시는 분이 편의점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 밖에 있는 냉장고 위에 놓았나 보다. 내다보니

아이스크림 3상자가 냉장고 위에 얹혀있었다. 다음 근무자분이 냉장고에 넣으려 할 때 검수기를 들고 말했다.

“아직 검수를 안 해서요.”

그러자 근무자분이 내 손에서 검수기를 가져가 검수를 하고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준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물건을 팔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할 때, 돈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었다. 무언가 판매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재활용 봉투 10장을 판매하고 1장 값만 받고 9장 값을 변상하기도 하는 등, 자잘한 실수들을 거쳐가니 조금씩 스토어 매니저로 변신해갔다. 전에는 업무를 익히기에 바빠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신경 쓰인다는 건 업무에 익숙해졌음을 알려주는 걸 거다. 내게는 그 신경쓰이는 일들이 손님들의 반말이었다. 반말하시는 분들의 생각으론 나보다 나이가 많기에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려니 이해하고 털어 내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그걸 거울삼아 아무리 어린 손님이라도 '어서 와요' 하고 인사를 건넨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존대를 해주니 엄청 좋아한다.

물론 진상 손님도 가끔 있다.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거 가져와!”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일부러 모른 척 한다.

“내가 좋아하는 소주 있잖아. 빨간 뚜껑~”

“아~ 알겠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공손히 대답하고 가져다드린다. 매점 안에 앉아서 먹으려는 걸 막았더니, 엄청 화를 낸다. 매장 안에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덕에 가서서 편안하게 좋은 안주와 함께 드시라고, 공손하게 말하니 마지못해 일어선다. 어떤 날은 소주를 사간 후 3시간 만에 다시 오기도 했다.

“어르신~ 술은 하루에 반병만 드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술 말고

다른 거 사세요.”

진심을 다해 말씀 드리니,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곤 술대신 빵을 집어 든다. 계산을 한 후 공손하게 빵을 드린다.

“고마워~ 많이 팔아!”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얼굴 표정은 물론이고 말씨마저 부드러워졌다. 내 맘도 편해진다. 행복한 느낌이 든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푸르른 오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난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마지막에 행복한 놈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자주 행복한 놈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그러던 순간, ‘상품만 팔지 말고 행복을 함께 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근무할 때 즉시 시행해 보았다. 결제가 끝난 상품에 행복을 마음으로 엮어 공손하게 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니, 손님들이 엄청 좋아한다. 나이 먹은 손으로 행복을 엮어드리니 황송해하는 손님들도 있다. 물론 손님들은 행복을 엮어드리는 것을 모른다. 그럼에도 내 태도에서 무언가 입혀지나 보다. 상품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받아 간다.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을 엮어드리려면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행복해져야 한다. 스스로 행복해져야겠다고 마음먹으니 행복해진다. 가슴이 행복으로 충만해진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 삶에 활력이 생긴다. 일을 하게 되니 소설과 바둑을 덜하게 된다. 눈이 다시 맑아지고 일하는 도중 간간히 스트레칭까지 하니 건강도 좋아진다.

나는 백수가 아니다. 60대 후반의 GS25 스토어 매니저다. 이왕 시작한

스토어 매니저, 남들과는 다른 멋진 스토어 매니저가 되자. 오늘도 나는, 편의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판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행복이라는 상품을...



02



고객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공항지킴이

고혜자 | 서울강서시니어클럽

한국공항공사의 슬로건처럼 김포공항에는 고객과 마음을 잇는 강서시니어 클럽 소속 ‘공항 지킴이’가 있다. ‘공항지킴이’는 84명의 강서시니어 클럽 소속 선생님들이 김포공항에서 안내분야와 보안분야, 주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내분야의 공항지킴이는 항공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고객의 원활한 탑승과 편의를 위해 도우며, 또한 항공으로 공항에 도착한 고객이나 공항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행선지, 서울과 경기권 및 지방으로 이동하는 고객의 지상교통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다. 기타 공항내의 부대시설과 상주업체 안내는 물론이고, 고객의 분실물 처리 업무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어 소통능력과 응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항지킴이는 신분증 없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생체정보 자동등록인 ‘바이오 사전등록’ 방법 및 항공 탑승을 위한 구비서류 등, 국내선 항공 탑승고객을 위한 신속한 절차와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항지킴이는 공항주차장에서 개인차량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출입 및 통제, 차량의 정렬 및 주차장 이용할인혜택 등, 공항주차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 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선생님들은 고객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객의 다급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침착하게 해결하는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과의 현장접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안내분야에서의 나의 경험담을 통해 김포공항 공항지킴이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나누어보기로 한다.

해결사로서의 '공항지킴이'

모처럼 만난 여덟 분의 여자 동창생 고객님들이 국내선 1층 고객의자에서 만남의 반가움과 제주도 여행에 대한 설레임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신다. 나는 그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용하실 비행기 출발시간을 물은 뒤, 현재 3층 출발장 일반대합실에 긴 줄로 대기하고 있는 승객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되도록 빨리 격리대학실로의 입장'을 권유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고객님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어느 한 분이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당황해 하셨다.

"혹시 화장실에 가신 적 있으세요?"라는 나의 질문에 "아니요, 화장실 안 갔어요. 지하철에 서도 휴대폰에 있는 카드로 찍고 나왔거든요.", 하시더니 가방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아~지하철 화장실에 들렀다."하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허겁지겁 지하철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신다. 나는 "고객님, 캐리어는 친구 분들께 맡기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라는 나의 말에 친구 한 분이 캐리어를 맡아주시고 휴대폰을 분실하신 분은 서둘러 뛰어가셨다. 나는 "친구 한 분이 같이 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 분은 휴대폰이 없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요."라고 말씀드리자, 친구 한 분이 뒤따라가셨다. 잠시 후, 지하철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찾았다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나에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 하시며 여행길을 재촉하셨다. 공항지킴이로서 당연히 할일이지만, 고객의 감사함이 오히려 나의 큰 기쁨이 되어 돌아왔다.

도우미로서의 '공항지킴이'

국내 3층 출발장 일반대합실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비행기 출발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지금 김포공항 지하철역에 도착했다며 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놓칠 것 같다”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셨다. 탑승권은 모바일탑승권을 소지한 상태이고, 고객님의 이용할 비행기는 이미 탑승장 입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하철역에서 공항청사 출발장까지 오는 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락없이 비행기를 놓칠 상황이었다. 길을 아는 나는 고객님과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함께 뛰어가면서 지금 오고 있는 자녀와 계속 통화로 위치를 확인하게 해 다행히 중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승객은 자녀와 발이 땀이 나도록 뛰은 덕에 출발 12분전에 격리대합실로 무사히 입장하게 하였다. 입장을 하면서 고객은 나의 패스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하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신다. 오늘도 내게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의 덕분에 나의 하루가 뿌듯한 보람으로 채워진다.

협조자로서의 '공항지킴이'

국내선 2층 안내 데스크에 허겁지겁 달려 온 중년 여자 고객은 제주도 출발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타고 온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오셨다고 했다. 비일비재한 사례다. 이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은 비행기 출발시간이다. 고객이 이용할 항공출발시간은 40분 후였는데 문제는 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수화물 탑승수속을 해야 할 입장이었다. 나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운전기사는 운전중이신지 전화연결은

안되고 시간은 애타게 지나갔다. 여러 차례 통화시도 끝에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 기사와 전화연결이 되었지만 택시는 그 동안 꽤 먼 거리에 있었다. 시간이 없어 고객 먼저 탑승수속을 하게 했고 그동안 나는 택시기사에게 고객을 내려준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택시번호, 택시색상을 확인한 뒤 밖에 나가서 운전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그동안 탑승수속을 마친 고객님께 드렸다. 나에게 휴대폰을 받은 고객의 황급한 마음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여유도 없이 3층 출발장을 향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신다. 고객님의 뒷모습을 보며 ‘고객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임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국제를 잇는 '공항지킴이'

퇴근이 임박한 시간에 국제선 2층 안내데스크에 일본인 중년여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통스러운 안색으로 오셨다. 사연인즉, 점심에 김밥을 맛있게 먹고 출국을 위해 공항에 왔는데 배가 아프고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다. 다행히 고객의 출국시간은 넉넉해서 고객이 요청한대로 병원으로 가기 위해 공항 119 구급대를 불렀다. 통역 때문에 나도 함께 가야 한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나도 동승하여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객의 병명은 급성 장염이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받은 처방으로 병원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복용한 뒤, 고객의 통증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 무사히 일본으로 떠나면서 고객이 나의 주소를 물으셨다. 한 달쯤 후, 나에게 한국말로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한 한 통의 편지와 일본의 다과를 보내주셨다.

편지 내용은 일본 NHK 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미노찌 여사님이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풍경에 반해 친구와 함께 13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내용과 자신의 가족 소개,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다. 감사함에

나도 선물을 보내 드리고 가끔의 유선 연락과 크리스마스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인연을 이어왔었다. 그러다가 서로 바쁘다보니 요즘은 연락이 소원해졌다. 이렇듯 공항 지킴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람, 그 이상의 감동으로 일하고 있지만 공항지킴이에게 늘 보람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려도 잘못 알아듣거나, 까칠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명 ‘진상’ 고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낮선 곳에서 문의를 할 때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역지사지의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질문이라도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내용에서 이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비록 오랜 경험적 활동일지라도 항상 고객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강서시니어클럽 공항지킴이는 성장하고 있다.

사실, 인생의 발달주기에서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이 쇠퇴해 가는 시기이다. 또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개인의 미해결된 문제들로 힘들 가능성이 높은 인생주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나의 노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다. 또한 가정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어서 노년기가 결코 인생의 쇠퇴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 제2의 절정기의 삶이 되어 행복을 준다. 나의 이 행복감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어 가족모두가 나의 공항지킴이를 응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 그 가족 중에 노년기 한 사람의 만족스러운 삶이 가족 상호간의 긍정적인 역동의 효과로 나타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서 밝은 사회를 이루어감을 뜻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강서시니어클럽의 관계자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이에 부응하여 하늘을 잇고 마음을 잇는 김포공항 곳곳에서 '84명의 강서시니어클럽 공항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은 오늘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더욱 폭넓은 분야로 진출해 나아갈 공항지킴이의 활약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03

저는 강남시니어입니다

조복순 | 서울강남시니어클럽



덜컥 다가온 정년

어, 어, 어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미처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정년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2019년 8월 말로 41년 6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할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퇴임식 때는 모든 것들이 아득한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 나이 예순 세 살 때 일어난 일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한 번 뿐인 인생이기에 모든 것이 처음이고 하행선 차표는 이미 출발된 뒤라 반려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하나...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던 반복된 일상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야하나... 가을 햇살이 기우는 강가에 앉아 아직 골방으로 들어가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아하는 나의 고민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계속 되었다.

이건 어때?

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시간을 재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천천히 전시회나 시장을 둘러 보는 일을 해도 하루 해는 너무나 길었다. 몸과 함께 늙지 않는 머리는 남은 시간 속에서 점점 고통스런

부담으로 다가왔고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 등으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는 일이 점차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게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의 직업을 평생 수행했던 오랜 습관은 집 근처 학교에서의 울리는 시종소리에도 예민해지기 일쑤여서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이러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후회나 미련이 남아 있어서일까?’ 등등 고민이 점점 깊어져갔다. 어느 날 나를 잘 아는 선배를 만나 나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강남시니어클럽’에서 시험감독관 일을 하는데 그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것이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일이라 해도 마다하고 싶지 않은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시간이 되면 함께 해보는게 어떻겠냐니…?

내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평생 했던 일의 연장이고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는게 기뻛고 날마다 눈 뜨면 ‘무얼 해야하지?’ 하는 고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퇴직과 함께 사회 한 모퉁이에 버려진 잉여인간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울을 볼 수 있다면 매일 아침이 새로울 것 같아 신이 났다.

왜 응모하셨습니까?

강남시니어클럽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두 개까지 선택 할 수 있다. 방과 후 지도사 활동, 종이접기, 독서지도, 쿠킹클래스, 국가시험감독관, 시니어 모델, 지하철 택배, 공회전 감시 등 모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많아 선택에 고민이 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시니어 모델과 눈감고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국가시험감독관 등 두 가지를 선택했다. 면접을 볼 때 담당관께서는 ‘왜 응모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퇴직 후 오랜 숙고 끝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침없는 답은 밝고 크고 당당했다. 사회 구성원으로 의미있게 기여하고 정당한 보람과 기쁨을 일 속에서 찾고 싶다고!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가 된다. 나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된 노인이다. 정해진 대로 63세에 퇴직을 했지만 몸과 함께 아직 늙지 않은 나의 노년은 일을 원한다. 물론 일하지 않고도 서구의 복지 국가에서는 노년을 여유롭게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100세를 넘긴 어느 노학자의 말대로 100세를 살기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니 100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일을 하는 노년은 좀더 가치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시니어 모델이 되다

TV를 틀면 하얀 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노인이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하면 당신도 젊어져요.’라고 말한다. 딸에게 김치통을 전해주는 냉장고 광고 속의 엄마는 옛날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련되고 우아한 신세대 어머니다.

세상이 변했고 변한 세상은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 야무진 꿈이지만 세월 속에 익어간 나의 모습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았다. 허투루 보내지 않은 그간 세월이 나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젊은 모델들처럼 예쁘고 세련되고 양증맞은 것이 아니라 해도 충분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강남시니어 모델로 선정된 회원들은 원하면 모델 수업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심화교육의 장도 마련해주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되어 2달을 채 못하고 끝났지만) 원하는 업체에 모델 매칭도 해주고 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니 1석 2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내가 처음모델 일을 하게 된 건 <알토란>이란 건강관련 프로그램이었다. ‘립스틱 질게 바르고’를 노래한 임주리씨와 함께 식전 식후 혈당을 잴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음식을 섭취할 때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골고루 먹는게 좋은지 거꾸로 야채나 디저트를 먼저 먹고 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각각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재보는 것이었는데 촬영은 기대이상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처음 공인으로 전파를 타는 일을 앞에 두고 보니 매일 보던 내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해서 스스로 잠을 설칠 정도였다. 방송이 나간 뒤 알려지도 않았는데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봤다며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가 TV에 나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선택을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재능을 예순 중반의 나이에 찾을 수 있었다는 뿌듯함과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 차이를 주는지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흥미있는 발견이자 새로운 사건(?)이기도 했다. 그 이후 KBS 시니어 토크 프로그램인 <황금연못>에 한 번 더 출연해 해외여행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 쓰촨성 여행 중 7.0 강진을 만난 경험을 털어 놓았을 때는 전국에서 잊고 지냈던 지인들까지 연락을 해와서 한동안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새롭다. ‘아, 연예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학교로...국가공인시험감독관

시험은 늘 누구에게나 긴장되는 경험이다. 여러 번 시험을 거쳐 온 경험을 반추해 보아도 시험 자체가 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복도쯤에서 시험지 뭉치를 들고 걸어 오시는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괜히 화장실을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국가공인시험감독관 일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다시 그리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에 시험 감독을 가는 날이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지하철을 서너번 갈아타고 가야해서 아침을 거르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플지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배부하고 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창 너머 흑 학교 옆에 분식집이 있으면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음식을 사먹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시험관의 마음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시험이 끝나자 앞에 있던 수험생이 샌드위치 한 개를 내밀더니 ‘오늘 고생하셨다고, 선생님도 배고프실 것 같아 본인 것을 준비하던 길에 한 개 더 준비했다’며 빵을 내미는데 하마터면 너무 고마워서 그 수험생을 붙잡고 울 뻔한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코로나 시국에 간식 먹을 새도 없이 미래를 위해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사회적인 책무와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내가 들고간 시험문제 속에 그들이 원하는 답이 모두 들어 있기를, 내가 감독한 수험생 모두가 합격 날짜 발표일에 모두모두 웃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에 강남시니어 국가공인시험감독관인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진지하다.

서울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시험감독관이 내게 묻는다. ‘일을 참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그럼 나는 ‘즐겁고 말고요. 복도를 조심조심 걸으며 젊은 수험생들을 진심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건데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제가 저렇게 푸르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꿈이 서린 젊은 가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신발장 안에 있던 현직에서 신었던 뽕족 구두를 모두 버리고 수험생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굽 낮은 신발과 운동화로 바꿔 신으며 국가공인 시험감독관인 나의 아침도 늘 수험생처럼 두근거리고 있으니 이 일은 여전히 나의 천직이 확실하다.

저는 강남시니어입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을 말해주는 명함이 사라진 고립감은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가 사라져 버리니 사회적인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냥 할머니, 그냥 노인네, 그냥 옆집 여자가 되고보니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통째로 사라져 버려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퇴직 전에 마련했던 버킷리스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고립감 속에선 그것도 그림의 떡이다. 평소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만 살아온 것 같아 그것을 반성하며 퇴직 후에는 몸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해보리라 나의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았던 어르신 세신 봉사활동도 퇴직과 함께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보니 그 또한 공책 위의 낙서처럼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행 가능한 것들을 점검해가면서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과 보람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함께 시험감독을 하는 젊은 정감독 선생님이 시험답안지 겉봉투에 자기 소속을 기록하고 나에게 볼펜을 건네주며 부감독관 이름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 당당하고 또렷하게 적는다.

소속 : 강남시니어클럽 이름 : 조복순. 누군가가 내게 또 묻는다.

“무슨 일을 하세요?”

“예, 시니어모델해요. 저는 강남시니어입니다”

예순 다섯 살이 넘어간 나에게 소속이 있다는 것은 완벽한 축복이다.

0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건강한 인생 2모작 창출

박금홍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인간은 누구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이 세상에서 끝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맞이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또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삶의 끝으로 가는 길을 서서히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갑작스레 위암 판정을 받은 나는 수술, 휴직, 퇴직, 항암치료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힘든 항암치료의 길 위에서 나에게 다가온 죽음을 생각하며,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다 갈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삶의 연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에 더 집중되고 있었다. 심신이 건강 할 때의 생각과 허약할 때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웰-다잉 교육을 선배님의 권유로 받게 되었다.

1주간의 긴 교육을 받으며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내 죽음이 삶이 되려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긍정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 11회의 전주에서의 교육과 2회의 서울 교육에 참여한 뒤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중에 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상담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격 취득 후 가정에서, 각종 소모임에서, 보건소 등에서 주위 분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도입에 대한 과정, 목적 등을 알려드리며 작성과 등록을 도와드렸다. 인간이란 참 연약하여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또는 건강할 때와 병약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사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가까이 올 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평소의 생각과 달라질 수 있다. 나도, 가족도 당황하며 무의미한 연명을 위해 곧 끊어질 줄 알지만 가느다란 줄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병약해져 있을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건강할 때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함을 알려드리고 작성 전, 후에 가족들에게도 작성 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며 죽음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 하지 말고 가족들과 주위 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상담사 활동을 하며 여러 유형의 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담대히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작성하기로 약속하고 막상 만났을 때는 ‘이걸 작성하려 하니 마음이 떨리고 감정이 이상해져 작성할 수 없다’고 하시며 다음 기회로 미루는 분들도 계셨다.

이런 분들에게 의향서 작성은 죽음에 한 발짝 다가서는 두려움의 기분이 들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것이므로 그분의 뜻을 존중해 드리고 강요하지 않았다. 상담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부부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이 있었다.

남편 분은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얼굴에 병색이 좀 보였다. 반면 부인은 젊고 건강해 보였다. 의향서를 작성할 때 보니 두 분의 나이가 17세 정도 차이가 있었다. 작성하시던 중 호스피스 이용계획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남편 분이 나에게 다소 거칠게 물었다.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조금 들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리니 남편 분은 두 말 없이 '이용 의향 없음'에 체크를 했다. 부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용 의향 있음'에 체크하라고 권유했지만 끝까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죽음 앞에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강하게 느껴졌다. 부인은 몇 차례 더 권유하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남편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작성을 마치고 떠나는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이 부부의 관계는 앞으로 더 돈독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은 죽음 앞에서도 남은 가족만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읽었을 것이고 남편은 '없는 살림에도 배우자의 삶을 평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겠다'는 부인의 마음을 읽었으니 이들은 얼마나 더 애뜻한 마음으로 남은 생동안 서로를 위할 것인가? 상상하지 않아도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광경이었다.

이날 상담사 활동을 마치고 근무지를 나서는 발걸음은 하루를 잘 마무리 했다는 기분에 가볍기도 했고 함께 그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내 삶과 연결된 느낌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내 삶의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남은 삶을 사랑으로 더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상담사 활동은 무보수 봉사활동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유보수 활동이다. 이 나이에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듯하다. 매일 차려입고 일정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니 젊은 시절 직장생활 하던 그때로 돌아간 듯 일상생활에 활력이 솟았다.

노동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다가왔다. 손자, 손녀에게도 주머니 사정 염려하지 않고 선물도 할 수 있고 함께 사는 97세 시어머님께도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후원하던 단체에는 올해 목표를 초과해 후원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제적 풍요가 마음도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내 삶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사 활동을 통하여 더욱 활력있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상담사 활동을 계속하며 내적, 외적 평화와 행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05

오늘도 내일도 봉봉



김광현 |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시니어 클럽에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워킹스쿨버스운전사’입니다.

2022년 3월, 아침을 여는 이른 시간 싱글벙글 꽃송이를 얼굴에 치장하고 집을 나섭니다.

“할아버지 학교에 가신다.”

열 살 난 손녀가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 공부하러 가세요?”

“글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생겨 일하러 간단다.”

“학교에 무슨 일을 하러 가세요?”

“오늘부터 할아버지의 직업은 워킹스쿨버스 운전사란다.”

“할아버지가 운전을 해요?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바퀴 없이 학교까지 걸어서 데려다주는 등교 도우미란다.”

등교 시간에 늦지 않게 주황 조끼 입은 ‘어린이 안심등학교 도우미’가 아파트로 썩하게 달려갑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저학년 학생들을 정해진 노선을 따라 함께 보행하며 학교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려다주는 등교

도우미 일자리입니다. 학교에 자녀를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는 학부모님에겐 안심 서비스이고, 또한 엄마들의 바쁜 시간을 덜어주는 등교 도우미는 참 좋은 일자리입니다. 유치원 생활 삼 년 좋은 추억을 기틀 삼아 초등학생이 된 꿈 많은 1학년. 오늘은 주인공이 되어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또래 친구들과 학교 가는 모습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살펴보고 손들고 천천히 건너더니, 학교생활 익숙해지더니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초록 신호불이 밝혀지면 마치 백 미터 달리기라도 하듯 하나같이 뛰어나갑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늘 가까이서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때론 신호등에 깜박이는 숫자에 발걸음을 맞추어 놀이하듯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장난기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등교 도우미는 학교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늘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달려오는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아이들에겐 절대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안전사고는 사소한 곳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학교 가는 길은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됩니다.

5월이 되면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안전하게 학교까지 걸어서 함께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꿈 많은 꿈둥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기에 주어진 도우미에 최선을 다하는 시니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주위에서 냉정히 대하는 이웃들에게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인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까이 이르면 학생들과 함께 교문으로 들어갑니다.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우리 내일 만나자.”

답례로 하는 눈빛 인사가 ‘때론 힘들어도 행복이란 것을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 들어 일하며 보람 있는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에게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손주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교통안전을 솔선수범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저는 시니어 일자리에서 찾은 건강으로 산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일당으론 아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친구들과 돼지국밥에 막걸리 한잔을 돌리며 회포를 풀 수 있어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오늘도 바퀴 없이 달리는 워킹스쿨버스기사는 아이들을 두 발로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시니어들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노년의 삶을 즐겁게 보낸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봄날에 꽃처럼 주황색 조끼와 어우러져 위대한 꿈을 가진 초등학생 1학년. 가치 있는 꿈에 도전하는 꿈둥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퀴 없이 달리는 워킹스쿨버스 운전사인 저는 오늘도 어린이 곁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붕붕’



0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현순 | 대구동구시니어클럽



2021년 7월. 폭폭 찌는 더위에 친구의 소개로 시니어클럽에 방문하였다. 뜨거운 별아래 걸어가면서 얼마전 그만두게 된 약국이 기분 나쁘게 또 떠올랐다.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원 넘게 돈을 받으며 약국에서 전산 업무를 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았고,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 퇴직금도 없고,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라 보장받는 것도 하나 없어 억울한 마음이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일할 곳이 없나 찾는 와중 친구의 소개로 노인일자리를 알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집에서 무료를 생활을 하기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신청하러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간단할 줄만 알았던 신청은 서류도 가져가야 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해도 바로 일할 수가 없단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친구가 소개해 준 것이니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다. 그러나 한 해가 다 가도록 연락이 오질 않았다.

시간이 흘러 12월, 시어머니의 상중에 정신도 없고 할 일은 많은 와중에 소개해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일자리 신청 마감이라는데 안 가봐?” “작년에 신청해 봐도 안 되던데” “중간에 신청했으니까 그렇지 내년꺼 다시 신청해봐.” 그 말에 남편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부랴부랴

일자리를 신청했고, ‘도서관리지원’ 사업의 초등학교 도서관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다.

올 1월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는 약국에서 근무할 때보다 금액은 적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같이 일하는 짝도 좋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매일 보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출근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인지 평생 처음 알게 되었다. 물론 처음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장서, 배서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은 생소하기만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분류 기호는 또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처음 해보는 일에 적응하라, 가르쳐 주시는 분류 기호를 기억하라, 연초에는 매일매일 정신없기도 했다.

그래도 중간중간 꼬마 친구들이 찾아와 “선생님~”하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도움을 주고 나면 “감사합니다”하고 대답하는 그 모습이 내내 기억에 남게 된다. 매일 보는 꼬마 친구들도 생기니 이제는 이름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면 또 배서시 웃으면서 책을 꽂으며 정신없는 내 옆으로 와서는 궁금한 것, 좋은 것 이야기하며 한바탕 수다를 늘어놓기도 한다.

어느새 그 시간이 쌓이니 지금까지 일한 어떤 곳보다도 짧은 기간인데 많은 추억이 쌓였다. 그런데 이제 그 추억을 더는 쌓을 수가 없게 되었다. 4월 딸 집에 방문해 손주들하고 놀고 있으니 딸이 퇴근하여 왔다.

“다녀왔어?”하고 바라본 딸이 갑자기 내 앞에 오더니 영영 운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딸이 참 서럽게 우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겨우 달래어 물어보니 딸이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눈치 보며 일하다 오늘 선임한테 크게 혼났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던단다.

“애를 키우는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 말이 딸아이 가슴에 박혀 집에 와서 엄마를 보니 순간 서러워서 영영 울었다. “엄마가 서울에 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쌓아두고 있는데, 서울에 오면 그 생활이 영영 사라지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음 날 대구로 내려오는데, 영영 울던 딸이 계속 생각났다. 집에 와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주중에도 딸과 통화를 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좋지 않았다.

며칠 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애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서울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위까지 연락 오니 더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7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가 결정되고도 출근 날짜는 빠짐없이 돌아오고, 서울로 이사한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자리는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다. 그러다 결국 더 미룰 수 없어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 전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 있느냐 물어본다.

“저 7월에 서울로 이사합니다. 여기 일하는 게 너무 좋은데, 서울 사는 딸이 간곡히 부탁하니 거부할 수가 없네요.” 담당자는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니 대뜸 그런다. “꼭 가져야 하나요? 지금 일이 많이 힘드셔서 결정하신 거예요?”라고 물어본다.

“아니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 소개해준 친구가 내 평생 은인일 정도예요.” 그리고는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선생님 어쩔수 없는 사정이지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담당자로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틈틈이 만나던 담당자도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아쉬워하고, 짝도 아쉬워하고,

사서 선생님도 말리시니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지만, 딸아이가 울던 모습에 엄마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담당자가 서울을 가더라도 시간이 되면 노인일자리를 해보라고 소개를 해준다. 그리고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니 이 인연이 얼마나 고마운지. 서울 가서도 노인일자리는 당연히 계속 참여할 테지만, 단 몇 개월이지만 잠시나마 나와 함께 해준 짝, 사서 선생님 그리고 담당자까지 잊을 수 없을 거 같다. 짧지만 강렬한 이 만남이 내가 더 나이가 들어도 가장 고맙고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대구동구시니어클럽 도서관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다른 노인일자리도 기대해 봅니다.



07

활동의 즐거움과 자부심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은 나의 발걸음



우문웅 |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경로당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초·중·고 배움터 지킴이를 하면서 손주뻘 되는 학생들과 등갓길에 눈인사를 하거나, 낮익은 친구들과는 짧게나마 대화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근무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숨 막히는 무료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뒤로하고 금년엔 조금은 생소한 ‘승강기안전도우미’라는 사회서비스형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안전도우미’ 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시니어 전문 인력이 승강기점검 어플로 지역 내 승강기가 설치된 곳을 직접 찾아가 위치정보를 수집·승강기 번호판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그 동안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과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꽃샘추위로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아침 일찍 조원과 함께 매일 다른 현장에 직접 찾아가 점검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는 것이 익숙해진 타인지 걷기만 해도 금방 지치고 힘이 들었는데, 활동이 거듭될수록 체력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늘어난 체력으로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같이하는 조원과의 업무 스타일이나 호흡도 잘 맞아 근무하면서 일상이야기나 작은 고민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즐거운 근무환경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승강기 점검을 위해 건물을 방문할 때마다 점검 대상의 담당자 의견이 달라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사전에 공문이나 연락 없이 불쑥 점검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기도 했고,때론 별도 승강기 관리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당위성을 차근 차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또한 조그마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승강기 대수가 5~60대가 되는 대형 건물에서는 승강기 번호를 숨바꼭질 하다시피 찾아다니기도 하였지만 이것 또한 직업의식처럼 느끼며, 승강기 번호를 찾아낼 때마다 희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나도 아직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헌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입니다. 현장에 나설 때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의 대상이 나를 기다릴까 하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일을 한다는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을 지나 여름이 오면 무더위와 겨루며 현장을 누벼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즐거움과 자부심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발걸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시니어 일꾼님들 파이팅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모야 x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시니어 금융서포터즈 편



- 글 : 2022 노인일자리 일가견 공모전 참여노인 수기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한 노인일자리'(김동호)
- 그림 : 모아(Instagram@mo_ya5050)



모야 x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시니어 바리스타 편



- 글 : 2022 노인일자리 일가견 공모전 참여노인 수기 '굿바이 신경정신과!'(오숙현)
- 그림 : 모아(Instagram@mo_ya5050)





02

관계자 수기

01. 노인일자리 속에서 잊혀진 나를 인정 받다 남궁민희	43
02. 노인의 꿈을 이루는 노인일자리 고건희	46
03. '우유갑 원정대' 오늘도 출동 정명분	51
04. 스쿨존 '노란발자국' 아이들의 '안전발자국' 박지은	54
05. 노인일자리로 만난 내편 정연경	58
06. 소통의 결과 김소영	62
07. 함께 빛낸 CAFE SOOA! 최지희	65

01

노인일자리 속에서
잊혀진 나를 인정 받다

남궁민희 | 보은노인복지센터

‘선생님. 저는 죽고만 싶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어떻게 하면 죽나요.’ 참여 신청자의 접수와 상담 중 나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나의 머릿속에는 1393(자살예방 전문 상담 전화)으로 전화를 해야 하나, 1577-1389(노인학대 신고)로 전화를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1366(여성 긴급전화)으로 전화를 해야 하나... 머리속에는 온통 나에게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참여자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몰라 스마트 폰만 만지작거리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으시려고요?’ 라고 여쭙보니, 참여자는 약간 당황해하더니 무려 3시간이나 걸쳐 그분이 태어나서 본인의 삶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굴곡들을 풀어내셨다.

‘아하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에휴 힘드셨겠어요.’ 그 3시간 동안 내가 한 말은 고작 그 정도였다. 며느리로 아픈 시부모 병 수발을 위해 수년을 가족과 떨어져 있었으며, 집 밖에서는 완벽하고 멋진 사람이지만, 집안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남편, 멀리 떨어져 각자의 삶에 충실한 자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 라는 존재가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참아낼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수십년의 삶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여자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정받고 싶다.’ 인 것 같았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시냐고 여쭙보았다. 죽음에 대해 비장한 모습을 보였던 참여자는 어느새 소녀 같은

표정을 짓더니 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우리 센터 노인일자리 사업단 중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키워서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지역사회의 유휴지를 꽃밭으로 만드는 사업단이 있어, 그 사업단에 참여하기를 권해드렸다. 돌아오는 답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나 있겠어요’ 였다.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참여자를 끌어 올려야 했다.

요즘처럼 걱정없이 편하게 세상을 사는 어린 당신이 나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라는 감정이 얇게 깔린 듯했다.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촌년이에요. 그 촌년이라는 억양이 너무 좋아요. 촌년인 제가 밟고 자란 흙을 만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한 흙이니까요. 흙을 만지고 꽃밭 만들기를 통해 순수한 집중을 하게 되고 호미질 하다가도 꽃을 바라보고 멍을 때리는 명상을 하게 되요. 요즘 말하는 신조어로 ‘꽃멍’ 이라고 하죠. 우리는 일을 하면서 ‘꽃멍’ 을 하는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설득하였다. 노인일자리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풀밭을 메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음에도 그 빛을 밝히지 못하는 풀밭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이라 설명해 드렸다.

그 분은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가족이 되어 3년째 꽃밭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지금은 이야기가 있는 꽃밭을 구상중이시다. 나중에 우연찮은 기회로 참여자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그분의 집이 꽃밭이었다. 집안의 텃밭에 꽃 모종을 심어 사업단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잘하는 것으로 사업단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세월과 연륜까지 더해져서 지역사회를 운택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인일자리의 결실이 아닐까 하는 보람을 느꼈다.

노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하나의 일자리를 통해 이뤄낸 역할을

인정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도 받는 진정한 관계 속의 삶이 노인 일자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제2의 삶을 노인일자리에서 찾아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세상과 사이 좋게 어루러져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는 것이 노인일자리인 것이다. ‘선생님, 저는 노인일자리가 너무 좋아요. 사람 속에서 있는 것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도 좋아요. 저는 돈을 한번도 벌어 본 적이 없는데요. 노인일자리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저축한 돈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라며 즐겁고 보람된 이야기를 펼치신다. 더 이상 우울하고 또 더 우울하지 않으신단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고, 한계에 많이 부딪힌다. 양과 질을 보았을 때 두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노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돕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들의 긍정적 효과는 통계로도 뒷받침 되고 있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열정 가득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현장은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며, 일자리에 임하는 열정과 적극성은 젊은 시절과 다를바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 이순간도 우리는 물 흘러 가듯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생로이며, 그러한 생로병사의 순리 속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수많은 질병과 사고 등에서 살아남아 노년을 맞이한 대단한 분들이다. 노인이라 하여 대접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인정 받고 싶은 것이다. 대단한 노인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으로 받아지는 세상이 노인일자리이며, 그안에서 나는 내 노년의 미래를 꿈꾼다.



노인의 꿈을 이루는 노인일자리

고건희 | 전주서원노인복지관

저는 사회복지무원 출신입니다. 5년 전인 2017년 4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서원노인복지관'에 배정받아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복무 첫날, 처음 배정된 업무는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내 식당에 올라갔을 때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70~80대 어머님들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대하는 상황에 어색해서 주눅대며 인사하는데도 어머님들은 이것 저것 물어보시며 살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포장된 도시락을 수혜자 노인들께 배달하는 활동을 하시는 노인들도 계셨고 관내 청소 활동을 하시는 노인들도 계셨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는 사람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을 청소하는 사람도 노인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연결성에 놀라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처음 만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이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즐거움(樂)** _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건강한 행복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침 일찍 나오셔야 하고, 반복되는 소일이었는데도 도시락을 포장할 때도, 일을 마치고 가실 때도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을 청소해주시는 분들도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복지관에서 놀고 배우던 분들이었는데 곳은 청소 일을 하시는데 혹시나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해진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집에서 적절하게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같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출퇴근 길에 산책도 하며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시고 복지관 안팎으로 돌아다니시니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신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주는 당당함_나도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대저 늙음이란 나이가 많아서 감각이 완숙하고 모양이 변하고 빛깔이 쇠하며 기운이 미미하고 힘이 다하며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뼈마디는 끊어지려 하며, 앉고 일어남에는 사람이 필요하며, 눈은 멀고 귀머거리가 되며, 문득 돌아서면 곧 말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슬퍼지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늙음이라 하옵니다. -수행본기경-

제가 생각했던 노인은 위의 글에서 표현하는 노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서 만나게 된 노인분들은 아직 너무 젊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청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노인일자리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젊어서 하지 못했던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노인의 의미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게 될 때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분과 도시락 배달을 나갔을 때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이 참여자분은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노인들이 계시면 집집마다 일일이 안부를 묻거나 빈 도시락 통을 수거하며 식사는 다 드셨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도시락이 나와야 하는데 전날 배달한 도시락이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엔 수혜자 노인의 건강상태를 꼭 되물어 보곤 하셨습니다. 하루는 평소에도 치매가 심하신 노인 덕에 도시락배달을 갔을 때였습니다.

수혜자 노인이 빈 도시락 가방을 내어주지 않으셔서 도시락 가방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분께서 “건희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냐?”라며 쿵쿵대며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둘러 살펴보니 김장할 때나 쓰는 큰 고무통에 이번 주에 배달되었던 도시락의 내용물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손가락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무통의 내용물로 식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신 어르신이 도시락을 받으시면 그 내용물을 한군데에 모두 쏟아놓고 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길로 복지관에 돌아가 담당 선생님께 그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가 취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치매가 그만큼 심해진 것을 확인한 것도, 위생문제로 어르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일을 예방한 것도 일자리 참여 노인분의 꼼꼼한 확인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 때, 저 혼자 배달을 다녔다면 알아챌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일이며, 평소 속속들이 관심을 가져 줄 수 없는 분들을 보살피는 의미가 큰 일임을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늙음이 단순히 보호의 객체가 아닌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신감은 노인의 삶을 활기차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며,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무원으로 지낸 시간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_나 이거 꼭 되어야 해!

시간이 흘러 저는 소집해제를 했고 올해는 정식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관이 있던 지역의 노인들은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 반면 제가 일하게 된 본관이 있는 지역은 전주시에서도 저소득 계층,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발되신 참여 노인들의 활동을 위해 사업단이나 수요처 배치를 위해 상담을 진행해보니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쥐어주고 싶으시다는 분이나 본인이 쓸 용돈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뽀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이거 꼭 되어야 했어!” 하시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겨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의료비가 필요하신 어르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생활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어르신 등 소득보전으로써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필요하신 노인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꿈을 이루는 노인일자리

이제야 전담인력으로써 반년이 조금 넘게 일을 했지만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이 많다면 많을 것이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싶어요.”, “동네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같이 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같은 곁에 와 닿는 꿈들, 이른바 노인의 4고(苦)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참여 어르신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 어르신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곁에서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03

'우유갑 원정대' 오늘도 출동

정명분 | 인천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서구노인인력개발 센터 입구에는 우유갑이 항상 양옆으로 쌓여있다. 재생 자원활용단 참여자들이 회수해 오는 우유갑으로 입구 양옆은 커커이 쌓여져서 아침마다 직원들의 출근을 반긴다. 월말에 우유갑을 왕길동 선별장에 배출해도 다음 달 초부터 서서히 쌓여가고 배출할 시점이 되는 말일에는 1톤 트럭 가득 담길 정도로 대량의 우유갑이 쌓여 담당 대리는 일자리 담당선생님들에게 “우유갑 원정대 출동~”하자며 도움을 요청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카트에 우유갑 박스를 일일이 쌓아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다 같이 도와주시면서 “와우 어쩔 이리 반듯하게 잘라 오셨지?”, “이게 다 어르신들이 모아 온거예요?” “힘드실텐데 재생자원활용단 어르신들은 활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는게 신기하네.”라고 할 정도이다. 다들 말도 이쁘게 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도와주기에 센터에는 천사들만 있다고 너스레를 떨 정도다.

재생자원활용단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서 인천 서구청이 제안한 ‘자원순환 선도형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 사업이 선정되면서 서구청에서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도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유갑으로 만드는 클린환경도시 프로젝트’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재생자원활용단’ 이 탄생 하게 되었다. 재생자원활용단은 서구에 많은 카페나, 빵집, 어린이집에서 버려지는 우유갑을 회수한 작업장이나 집에서 물로 오염된 것들을 행구고, 2차로 소독약을 희석한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켜 반듯하게 자르거나 접어서 센터에 제출하면, 센터는 서구청과 협약해서 쓰레기봉투나, 휴지로 교환하여 연말에 취약계층에게 후원한다. 어르신들이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시면서 기부까지 하는 시스템이다.

초창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줄 수요처를 찾기 위해 1조 팀장님은 프로젝트 신청 팜플렛을 나눠드리면서 참여 의사를 묻고 다닐 때 폐지 줍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소금을 맞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 분이 “노인네가 카페 들락거리면 손님 없으니 다시 오지 말아요. 예잇 재수없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전담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렸다. 담당자인 나도 수요처를 찾기 위해 참여자와 함께 사업장을 다니며 참여 독려를 할 때 “손님이 많으니 나중에 오세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여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했을까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담당으로서, 이 모진 말들을 이겨내고 꾸준히 현재 수요처를 유지하며 우유갑을 회수하는 재생자원활용단 참여자들이 무척 자랑스러우며 감사하다. 어르신들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관내 카페 사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참여로 현재는 40명의 참여자들이 약 130여개의 수요처를 다니면서 우유갑을 회수하고 있다.

활동 모니터링을 나가 참여자들을 만나면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자원순환에 동참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라며 일의 보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전담 사회복지사로서 무척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수요처 사장님을 만나 상담을 하면, “버려지는 우유갑을 적은 수량인데도 모아두면, 방문하여 회수해 주시니, 편하기도 하고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을 중요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게 만들고 있다. 자원순환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서 재투입하여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 우유갑은 고급 펄프를 사용하는 수입품목으로 제대로 수거만 해도 종이타월로, 멸균팩은 비닐과 은박지로 재활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수거량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우유갑, 멸균팩 1톤이면 온실가스 132kg CO₂가 감축되면 30년생 소나무 2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한다. 이처럼 40명의 적은인원이지만 모아오는 우유갑은 한 달에 18,740장(890kg)이나 되며, 일년동안 모아 온것이 10,680kg이나 되므로, 재생자원활용단 참여자들이 1년간 10톤의 재생자원을 활용하고 1,320kg 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생자원활용단 전담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실지, 크게는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유갑 원정대의 일원인 나는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수요처로 향한다.



스쿨존 노란발자국 아이들의 안전발자국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박지은 | 서울도봉시니어클럽

살이 오들오들 떨리고 입에서 새하얀 입김이 나오던 2월이었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이렇게 추운데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셔도 괜찮을까?’ 생각하며 창림초등학교로 출발하였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은 여전히 어둡고 추웠다. 이날은 창림초등학교의 반장님을 처음 뵈는 날이라 서둘러 학교를 방문했다. 반장님은 새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학교 정문 앞에 서계셨다. “반장님!”하고 반장님을 불렀다. 하늘을 바라보시던 반장님은 그제서야 나를 발견하셨다. “반장님 날이 너무 추워서 어떡하죠? 괜찮으시겠어요?”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나 내 걱정이 무색하게도 오윤수 반장님은 “춥지? 근데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곧 봄이 올테니 괜찮아~”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웃으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반장님 말씀처럼 따듯한 봄이 찾아왔고 어느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여름이 된 시점이었다. 어느 때와 같은 평범한 날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즈음 전화가 울렸다. 오윤수 반장님이였다.

“길이 너무 위험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오윤수 반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듣고 부랴부랴 차에 시동을 걸어 학교로 출발하였다. 오윤수 반장님은 땀을 흘리며 꽤나 난처한 얼굴로 서 계셨다.

“어유, 우리 복지사님 오셨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보도블럭이 이렇게 까지 튀어나와 있다고!” 오윤수 반장님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한가운데 어르신 말씀처럼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었다. 알지 못한다면 필시 넘어질 수 있는 위치였다.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이 넘어질 뻔했는데 글썽 잘못하면 차도로 튀어나갈 뻔 했다고! 나야 이게 튀어나와 있는지 아니까, 상관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이걸 너무 위험한 일이야. 보기에 작은 보도블럭이지만 큰일로 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아까는 글썽 유모차가 걸려서 큰일날 뻔 했더니까?”

오윤수 반장님 말씀대로 작은 보도블럭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여전히 보도블럭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말소리가 들렸다.

침묵을 깨는 소리에 따라 고개를 들었고 무더운 여름날 근무로 인해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얼굴과는 대비되는 확신에 찬 눈동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고민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구청에 의견을 내보는 건 어떨까?” 어르신이 내게 물어왔다.

“구청이요?”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우선은 교감을 만나야겠어. 복지사님 어서 갑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같이 창림초등학교 교감실로 가겠다는 말에 오윤수 반장님은 내가 꼭 해결 방법이라도 찾은 듯이 반응하셨다. “그래, 그래. 어서 가자!” 맴맴 울어대는 매미를 뒤로하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짧게나마 오윤수 반장님이 처음 스쿨존 활동을 알게 되었을 때, 선발되어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반장이 되어 활동하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윤수 반장님의 확신의 찬 말투, 빛나는 눈빛을 통해서 얼마나 스쿨존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만큼 스쿨존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다. 얼마 걸리지 않아 우리의 발걸음은 목적지에 닿았고, 곤장 딱딱해 보이는 문을 두드렸다.

“예,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교감 선생님. 저기, 그 내가 학교에서 교통지도 하는 사람인데…”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바빠 찾아뵙지 못했네요.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어르신은 흑여 귀찮은 일일까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학교 근처 보도블럭이 말썽이지 뭐니까? 너무 위험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학교 보도블럭이요? 자세하게 위치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보도블럭이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정문 근처, 그 옆과 횡단보도 근처까지 해서 총 4곳입니다. 제가 교통지도활동을 하면서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들을 여럿 봤어요. 유모차가 걸려 넘어질 뻔 하기도 했구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말씀대로면 정말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깐요”

“미안합니다.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일이 생기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입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닙니까.”

학교의 연락을 받은 구청 관계부서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여 보도블럭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망대해를 헤매듯 지친 그 얼굴에 해결 방법을 찾고 나니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근무했던 기억을 잊은 듯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덕분에 큰 일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아이구, 아니지, 이렇게 더운날 복지사 선생님이 찾아와준 덕분이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먼저 라운딩 나와서 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유, 섭섭하게 그런소리 하지 말아요, 교통지도는 복지사 선생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내 일이기도 해요. 나는 내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나?” 나의 일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저 나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윤수 반장님을 보며, 지난 2월 창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너털웃음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첫 만남이 떠올랐다. 오윤수 반장님은 올해 여름이 끝날 때도, 시원한 가을에도, 다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겨울에도 같은 자리에서 너털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05

노인일자리로 만난 내편

정연경 |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저는 4남매를 키우는 독박육아 워킹맘입니다. 막내가 막 돌이 지난 2018년 8월 무렵 시니어클럽에 입사했습니다. 6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 저까지 일을 해야지만 4남매 육아가 수월했기에 어린 막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담당했던 ‘청소년 선도사업’은 남자 어르신들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래 참여하신 사업단 팀장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남자 팀장님들이지만 제가 딸 같으니 친정아버지로 생각하라 하시며 4남매 육아하며 일하는 저를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고생한다고 음료를 꼭 쥐어주실 때도 있고, 항상 수고한다 이야기해주시기도 합니다. 한 사업을 오래 맡아 운영하니 일하다 힘든 일이 있어 제가 표정이 좋지 않으면 진짜 친정아버지처럼 제 표정만 보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서 혼내줄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요? 혼내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웃어주시기도 합니다.

만 4년의 근무기간 동안 스쳐 지나가면서도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울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 퇴직하셔서 늘 깨끗하시지만 제가 방문할 때마다 커피를 손에 쥐어주시며 안 가지고 가면 화낸다고 하시던 기OO 팀장님, 장난끼가 많아서 제가 멀리서 보이면 팀원들과 서서 경례자세로 서계시던 박OO 팀장님. 비오는 날 나무 밑에 서서 비를 피하며 어르신들과 상담하는데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담당자를 흠뻑 젖게 만들던 장난꾸러기 김OO 어르신과 어릴 때 장난을 다 못쳐서 이런 장난을 치냐며 담당자를 괴롭힌 그 어르신께 호통치시던 박OO 어르신, 그리고 리더쉽이 뛰어나 항상 골치 아픈 어르신들을 모아 보내면 투덜거리면서도 그 어르신들을 잘 교육하셔서 담당자가 방문하면 담당자에게 큰소리도 못치게 만들어 주시던 황OO 팀장님, 똑똑하고 스마트하셔서 70대 초반이지만 공부를 좋아하셔서 쉬는 날이면 도서관에 다니시고, 문화센터를 다니시며 전국 컴퓨터 대회도 나가시던 김OO 팀장님. 3년 동안 모두 저를 잘 도와주시고 또 담당자의 요청도 잘 받아주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봐왔던 제 편이자 저의 지지자였던 팀장님들이죠.

그렇지만 제 기억에 가장 잊혀지지 않은 분은 처음 3개월 정도 담당하게 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의 팀장님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의 상징이셨던 팀장님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활동이 어려움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자녀의 부축을 받아 출근하시고, 마지막 출근날에는 담당자에게 “미안하다.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이상 못할 것 같네.” 하시고는 1주일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노인일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천직으로 여기시고 매일 같이 출근하셨습니다. 월 10회 활동인 공익활동이지만 팀장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 하시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월 20회 참여자들의 오전오후를 지키셨고, 담당자가 현장 점검을 나갈 때마다 항상 만날 수 있었습니다. 4남매 육아로 힘든 담당자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며 제가 점검을 나가면 과자를 한봉지 가득 사서는 아이들 가져다주라고 주시는데, 한사코 거절하면 친정아버지가 주는데 왜 안 가져가냐며 기어코 제 차에 밀어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통합 활동교육으로 400명 넘는 참여자들이 모여 정신없는 상황에 팀장님께서 어느새 제 옆에 오셔서 “물 나눠주는 건 내가 도와줄테니 할 일해요.” 하시면서 제가 출석 확인을 하는 동안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던 팀장님.

그 팀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날은 팀장님을 알고 있던 직원 모두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준 대구동구시니어클럽에 너무 감사합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벌써 1년 전이지만 잊을 수 없는 성실한 팀장님을 노인일자리를 통해 만났습니다.

저는 4남매를 육아하며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분장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관장님과 실장님, 기관 팀장님들 덕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제 기억에 오래도록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남을 사업단 팀장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어느덧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큰딸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내년엔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하는 저를 보며 아이들은 엄마가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구역이 아이들의 주요 통학로들이라서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곤합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뵈면, 오늘은 어르신이 일하고 있다, 쉬고 있더라며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 가서 인사라도 드리라고 하면 또 신나게 가서 인사하곤 ‘인사 잘해 예쁘다’는 칭찬도 들었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재직하며 많은 추억을 쌓고 또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저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보람을 느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 역시 어르신들과의 만남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추억과 좋은 인연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06

소통의 결과

김소영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사업단명 ‘동탄보육시설지원’. 말그대로 동탄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동탄의 국공립 유치원과 시립어린이집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을 배정할 때 수요처의 담당자들은 여자 어르신들이 배정되기를 바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여자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기관 청소를 도와줄 때 남자 어르신보다는 여자 어르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는 남녀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남자 어르신들이 배정되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할 어린이집이 남자 어르신이 배정되었던 곳이다. 처음에 원장님은 남자 어르신이 오실 것이라고 전혀 예상 못했다고 했다. 남자 어르신이라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할까도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원장님과 남자 어르신이 근무 시작 전 면담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업무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했다. 원장님은 남자 어르신이 어린이집에서 도와줄 수 업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어린이집 특성상 여자의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 어르신이 해주실 만한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던 중 참여 어르신과 면담 때 평소에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여쭙보았고 참여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주말농장을 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때 원장님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생태 수업을 위해 화분으로 하는 텃밭을 외주에 맡겨서 진행하는 중이었다. 교사들이 텃밭을 하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텃밭만 맡아서 철마다 각종 채소를 키워주는 업체에 꽤 높은 금액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원장님은 주말농장을 하시는 참여 어르신에게 어린이집 텃밭을 맡아서 운영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았고 참여 어르신은 철마다 주말농장을 하면서 키우던 채소와 꽃들이라 어린이집 텃밭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수요처와 참여 어르신 간의 대화를 통해서 업무 결정이 되었다.

이는 남자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보다는 같이 소통하면서 어르신의 취미나 좋아하는 일들,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알아가면서 수요처에서 필요한 업무를 찾아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수요처와 복지관 그리고 참여자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다른 수요처들과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어린이집 앞 화분 텃밭은 계절마다 새로운 꽃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사실 고층 아파트 사이에 있어서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긴 화분으로 된 텃밭으로 곡식이 잘 자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어르신의 애정과 정성으로 농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봄인 3, 4월에는 펜지, 봉숭아 등의 꽃과 포도나무, 메밀, 호박, 토마토, 고추, 가지를 심고 5, 6월부터는 옥수수, 들깨, 우렁농법 모내기 등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물도 주고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참여 어르신이 생태 수업을 맡아서 해주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도심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멀리 가지 않고 생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응이 좋고 그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린이집 앞에 텃밭은 유명해졌다고 한다. 수요처 원장님의 말씀은 현재는 원장님뿐 아니라 교사들도 참여 어르신이 단순히 업무를 위한 어르신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 같은 정도로 잘 지내고 있으며 여자 교사들만 있던 어린이집에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고 계셔서 든든하다고 했다.

참여 어르신은 텃밭 가꾸기는 노력한 만큼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 희열을 느끼고 직접 재배한 채소를 수확해서 아이들 먹거리로 쓰일 때, 교사들에게 나눠 줄 때, 또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두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남녀 성별로 인한 선입견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노인일자리가 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07

함께 빛낸 CAFE SOOA!



최지희 |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매섭던 추위가 끝나고 따듯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2020년 3월.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대구달서시니어클럽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처음이기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되는 마음과 새로운 직업, 업무를 경험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입사 후 처음 담당하게 된 사업은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 지원사업과 달서구청 시니어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오픈하게 된 ‘CAFE SOOA’였습니다. 입사 전 카페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준비해보는 건 처음이라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매장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매장 내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는 업무와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행정업무도 익숙하지 않아 부족한점들이 많았지만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준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협력업체인 ‘커피맛을조금아는남자’ 대표님과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대구경북본부’의 도움으로 참여자 18명이 ‘커피맛을조금아는남자 아카데미’에서 커피머신기를 다루는 방법, 밀크스티밍 하는 방법, 기본 음료 만들기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있어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면서 조금 더 멋있는 바리스타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더웠던 2020년 7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대구기독병원 1층에 시니어바리스타 18명이 운영하는 'CAFE SOOA'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후 일정한 음료 맛을 내기 위해 꾸준한 교육을 진행했고 오픈 초반에는 참여자들이 음료 제조나 밀크스티밍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매장 내에서 반복적인 교육과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레시피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11월, 12월에는 빼빼로데이 이벤트와 아몬드라떼, 흑임자라떼 등 신메뉴를 출시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전 계획으로는 연 매출 6천 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참여자분들의 열정과 많은 관심 덕분에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연 매출 9천 만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커피도 맛있고 어르신들도 멋있으세요.', '점심때 꼭 여기 커피만 마셔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단골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참여자들이 매일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 활력도 얻고 커피 맛을 칭찬해 줄 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뿌듯한 마음이 들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문이 좋게 나 대구 신문, 지역방송 tcn 시니어 행복플러스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들로 '엄마' 라는 프레임을 벗고 삶의 한 주체로서 지금까지 지나온 삶과는 다른 유형의 삶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한 담당자였지만 참여자분들이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서로가 좀 더 성장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고용될 기회가 주어져 경제적인 보탬과 삶의 활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대국민 수기

01. 어느 여름날 만난 암 환자와 어르신 | 조유정 69

01

어느 여름날 만난 암 환자와 어르신



조유정

‘겪어보야 안다.’ 이 말은 만국 공통,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당연하며 공통적인 쟁점을 꿰뚫는 말이기도 하다. 나에게 암 투병이 그러했고, 어느 복지관에서 했던 봉사 활동이 그러했다.

스물일곱, 느림보 사회복지학과의 학생. 같은 시기에 입학한 친구들은 모두 졸업하고 취업해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나는 복학을 준비한다. 스물하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예쁘게 꾸미고 청춘을 만끽했던 여름, 나는 병실 한편에 우두커니 앉아 머리를 밀었다. 다사 다난한 암 투병 후 건강을 찾았다고 안심했던 무렵, 뇌전이 형태로 백혈병 재발 선고를 받았다. 6cm짜리 뇌종양이 뇌를 압박했고 종국에는 꼬리뼈까지 암이 전이됐다. 골수에 들끓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더 강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했고 8개월이라는 긴 입원 기간 속에서 나 자신이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점차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꼈다.

치열했던 암 투병이 6년을 넘어갔을 무렵, 주치의에게 완치는 아니지만, 일반인처럼 생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평범한 일상을 염원하던 나에게 더 없을 희소식이었다. 꼬리뼈 통증이 줄어들고 하루에 4알씩 집어삼켰던 진통제를 끊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결심한 일은 봉사활동이었다.

사실 가장하고 싶었던 일은 복학이었으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침상 생활을 오래 해서 체력이 부족했고, 호전되지 않은 꼬리뼈 상태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긴 학교생활이 망설여졌다.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성공 경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한동안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때,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기 전 필요한 봉사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게 떠올랐다. 실습을 못 하면 졸업도 못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것 봉사 시간도 채우고 체력 체크도 하면서 복지관 일을 돕는 아름찬 경험도 하고 자신감 회복도 하자는 목적으로 험난한 봉사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내가 방문했던 기관은 무려 9단지까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공 아파트촌 안에 위치한 종합 복지관이었다.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호기로웠으나 막상 복지관 앞에 도착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색하게 뒤집어쓴 가발을 만지작거리며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그러나 앞서 했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행사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가 당일 핑크를 내면서 내가 급하게 행사 일을 거들었던 일을 계기로 일종의 ‘일 맡기면 잘하는 봉사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그 후로 행사 안내, 행사장 준비, 방문 기록 등록, 템플릿 만들기 등 다양한 일을 받아서 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일감에 당황했지만 끝내고 나면 자신감이 치솟았고 보람 있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럴 때면, 마치 만화 속의 주인공 소년처럼 ‘해냈다!’ 하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게 되곤 했다.

우리 복지관에는 일손이 아주 부족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경로 식당 급식 준비, 도시락 포장, 배달, 행사나 프로그램 장소 준비, 사무실 옆 작은 카페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손님들께 음료 제공,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셨다. 자원봉사자인 나는 주로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았는데 둘 다 잡일 담당이라 겹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행사 준비를 도와주시는 어르신 중에 왜소증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150cm 남짓한 내 키의 반 정도 오는 신장이셨지만 나보다 더 많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셨다. 첫 만남 때는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께 복지관에서 복지 제공 차원에서 일감을 나눠 주시나보다,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언뜻 배려일 수 있지만, 무례한 편견이기도 했다. ‘왜소증 장애인이니까 일하기 힘들실 것이다.’라며 그분과 함께 일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다. 그분을 나와 동일한 선상에 두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분은 복지관에서 가장 부지런한 어르신이었다. 아침에는 경로식당에서 도시락에 반찬 담는 일을 도우셨고 낮에는 행사장 준비나 청소, 텃밭 관리 등등 사람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엔 일을 의연하게 해내셨다.

“아가씨,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알아요?”

“나팔꽃... 은 아니겠죠? 무슨 꽃이에요?”

땀방 아래 어르신은 텃밭의 잡초를 뽑으시고 나는 작은 삽으로 땅을 파서 모종을 심었다.

땀에 폭 젖어서 그늘에서 한숨 돌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어르신은 ‘속성 식물강의’를 해 주셨는데 나는 식물 관련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다 보니 어르신이 식물학자처럼 박식하신 것에 몹시 놀랐다.

“가지. 가지꽃. 채소 꽃치고는 아주 예쁘지?”

“네. 예쁘네요. 여기 옆에 따로 키우시는 것도 채소예요?”

“아니. 이거는 페퍼민트. 티백으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나눠주려고.”

가지는 향암에 좋다고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장 자주 먹는 채소 중 하나였음에도 가지꽃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라색 꽃이라면 나팔꽃밖에 모르는 내가 새로운 보랏빛 꽃을 배운 순간이었다. 가지 꽃잎을 만지며

무구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며 ‘이분은 그저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이실 뿐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자기만의 기쁨을 찾는 분이시구나.’ 그저 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이라서, 장애인이라서, 그런 요소들은 그저 ‘상태’ 일 뿐이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될 수 없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좀 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궁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르신은 텃밭을 가꾸는 일을 하시며 식물 공부에 취미를 붙이셨다고 하셨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해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젊다.’

어느 그리스 시인이 남긴 격언인데 눈을 빛내며 가지에 관해 설명하시는 어르신께 딱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에는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또 몰두하셨던 어르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병마 앞에서 내려눕던 나의 꿈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나이면 꿈을 찾기는 너무 늦은 나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올려두고 간 마음속 누름들을 잠시 드러내고 ‘나는 뭘 배우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고민해 보았다. 결국 그 고민에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지만,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 나갔다. 체력이 부족한 탓에 뭘 하든 더디고 영성했던 나를 어르신께서는 많이 도와주셨다. 남는 시간에는 탁구를 가르쳐주셨는데 어르신은 프로 선수와 다름없었고 나는 사실상 볼보이었다. 선수 못지않은 폼으로 날렵하게 탁구를 날리실 때면 여전히 내 허리쯤을 간신히 넘는 신장이신데도 그분의 모습이 무척이나 커 보였다.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나 보다. 그분은 누군가가 도와야 하는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사람이셨으니까.

오후에 텃밭을 관리했다면 오전에는 어르신과 식당에서 80~100인분 정도

되는 도시락통의 반찬 담는 일을 도왔다. 식당 구조상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반찬을 담아야 했는데 여사님들과 눈이 자꾸 맞는 게 머쓱해서 그때마다 슬그머니 웃었더니 여사님들과 많이 가까워졌다. 여사님들은 ‘선생님, 점심 거르면 안 돼. 꼭 먹고 가’ 하시며 매번 내 끼니를 걱정하시고 챙기셨는데 은연중에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내 오늘 달라진 거 없나? 우리 딸내미가 어제 영양 크림을 주더라.”

“와, 언니야 좋겠다. 어쩐지 오늘 얼굴이 깐 달걀처럼 반질반질하더라. 파리도 미끄러지겠어.”

아하하! 여사님들은 소녀처럼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도 호탕하게 허리를 젖혀가며 폭소하셨다. 저렇게 수다를 떠시면서도 도시락에 반찬을 옮겨 담는 손을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 노련해 보였다. 말 그대로 여사님들은 프로셨다. 어느 날은 도시락 배달 일정이 꼬여서 9시 30분에 끝났어야 하는 배달이 10시 30분이 되도록 진행되지 않았다. 거동이 힘든 분들이 드실 식사여서 늦어지면 그분들이 끼니를 늦게 잡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졌다.

“할배, 할매들 밥 못 먹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갖다줘야지. 우리라도 가자,” 여사님들은 곧장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도시락통을 각자 6개씩 들고 급식실을 나서셨다. 하필이면 여름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던 날이라 배달 다녀오신 여사님들이 다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셨다. 덥다며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시는 여사님들께 일이 많이 힘드시진 않냐고 여쭙자,

“힘든 게 좋은 거야. 집에 멍하니 있는 것보다 바쁘니까 활기가 돌아서 좋아.”

“혼자사는 할배, 할매들 밥 챙겨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보람 있어.”

“공짜로 하나? 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해야지.”

여사님들은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청량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제공, 지원 제도를 통해서 근무하시는 거니까 좀 여유롭고 편하게 일하지 않으실까 지레짐작했던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한여름에 화구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맞아가며 반찬을 만드는 것은 아주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급식실에는 선풍기도 두 대, 에어컨도 두 대나 있었지만, 여사님들은 항상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쳐내셨다. 불 앞에서 대량의 음식을 지지고 볶고 끓이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연령이라는 기준은 어쩌면 기회의 박탈일지도 모른다. 텃밭 관리를 위해 식물 공부를 하신 어르신처럼 노인도 자기가 원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자기 영역 밖의 일이라도 곤란해할 누군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여사님들처럼 자기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도 있다. 요는 나이보다는 일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청년은 몸이 건강해도 비좁은 원룸이 미어터지도록 쓰레기를 쌓아놓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어느 노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관절염 도진 무릎을 두드리며 새벽같이 일어나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굽은 등을 힘껏 밀어 드린다면 70세에 바리스타가 되고 미래에는 80세에 가수가 된 노인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노인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장 앞에서 결국 노인이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사회적 약자로서 도태되어 방치된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으며 인적 자원의 낭비가 아닐까?

이 사회를 가꾸는 농부 중 한 사람으로서 노인을 믿어주고 격려하는 사회라는 열매가 영글기를 기원해본다.

노인일자리 현장 소식 및 인터뷰 영상

노인일자리 현장체험 <정과장이 간다>

구분	내용	QR코드
1	정과장이 간다 EP.01 환경을 지키는 노인일자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2	정과장이 간다 EP.02 남다른 손맛이 일품! 어묵168 & 화통한 할매도시락	
3	정과장이 간다 EP.03 목공소계의 어벤져스! 하이원 공작소 운영 사업	
4	정과장이 간다 EP.04 시장형 사업단 청춘밥상(with 총TV 김선태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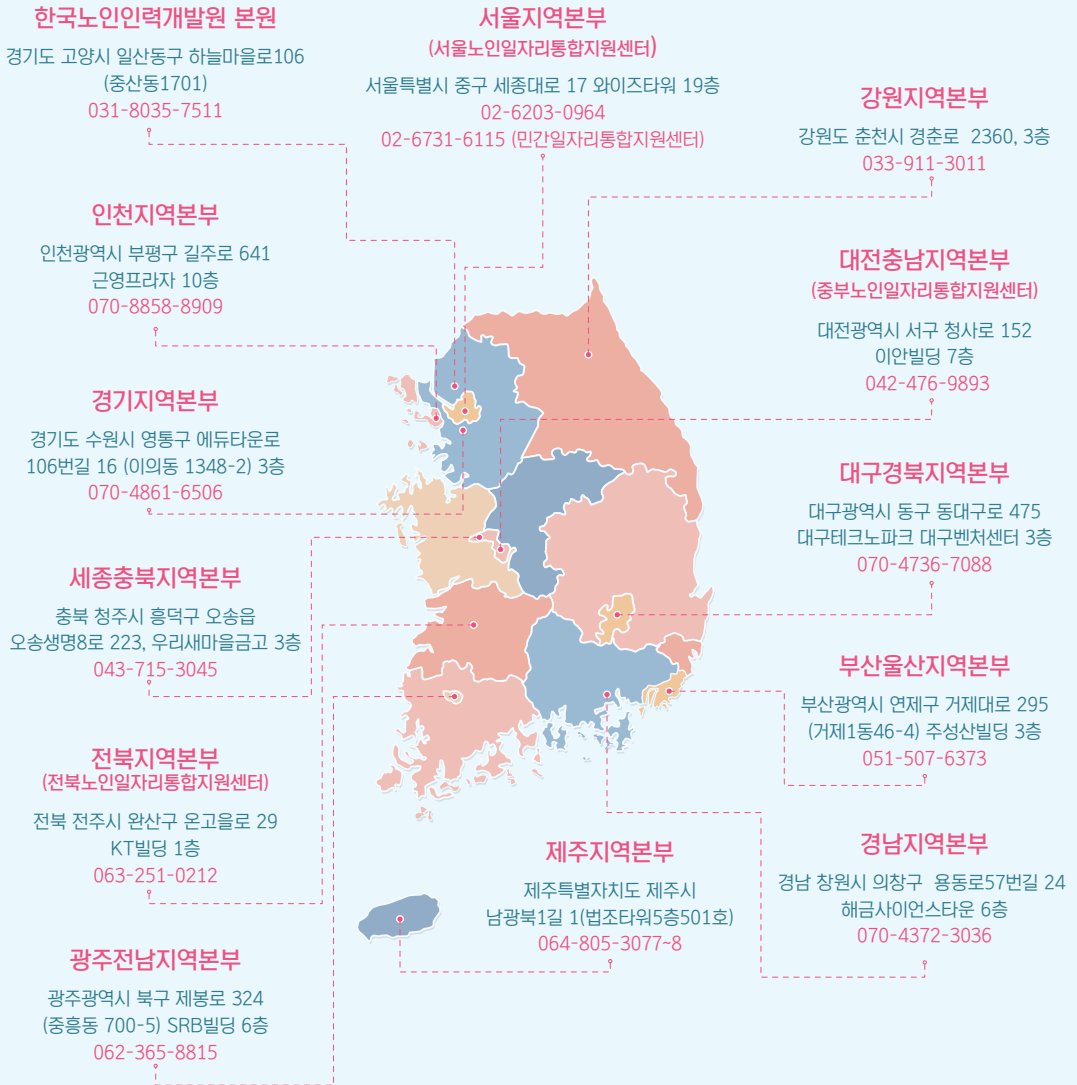
노인일자리 브이로그

구분	내용	QR코드
1	마산 껌배기 요정! 꼬아배기 박덕선 시니어의 하루	
2	전주 한식뷔페 ‘잡수세요’ 신영희 시니어의 하루	
3	울산 친절왕은 나야나! 정만복 시니어 산재가이드 편	
4	은퇴자들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 김상훈 시니어컨설턴트 편	

노인일자리 특특 <작은 인터뷰>

구분	내용	QR코드
1	“성장동력은 노인일자리였죠” 고령자친화기업 (주)아리아 박노철 전무님	
2	“미래의 나를 찾는 것, 답은 현장에 있어요” 시니어 인턴십 현대삼호중공업 정재근 시니어	
3	“어제와 다른 오늘, 노인일자리 덕분이죠” 공감&팻 이옥희 시니어	
4	“노인일 자리를 통해 건강한 시니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강서공항지킴이 고혜자 시니어	
5	“노인일 자리로 일, 보람, 건강을 찾으세요!”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김광현 시니어	
6	“노인일 자리는 내 삶의 활력!” 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 박금홍 시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및 지역본부 연락망





새로운 시작

발행일 | 2022. 12.
발행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 김미곤
편집처 | 홍보부



Copyright ©20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 저작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